

07 고 교 과 목 별

탐구 두 과목, 무엇을 고를 것인가

대학이 지목한 과목

- ◆ 이 자료는 **무료**입니다. 마음껏 나눠 주십시오.
- ◆ 법령과 학교가 발표한 요강만 정리했습니다. **예측하지 않습니다.**

CONTENTS

01	숫자부터	2
02	과탐인가 사탐인가	3
03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	4
04	그래서 무엇을	5
05	자주 묻는 것	6

무엇이 들어 있나

- ◆ **81%가 한 과목만 섹니다** — 1등급 하나와 3등급 하나가 2등급 둘보다 나은 조건
- ◆ 과탐만 지목한 자리 525줄 · 사탐도 되는 자리 1,952줄 — **어디에 몰려 있는지**
- ◆ 고르는 세 가지 짜임 (물기·고르게·연결해서) · **바꾸려면 언제까지**
- ◆ 놓치기 쉬운 단서 — 「**탐구 2과목만으로는 최저를 맞출 수 없음**」

01 · 숫자부터

대부분 한 과목만 셉니다

「탐구 두 과목을 다 잘해야 하나요?」

대개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두 과목을 고르게 붙들다가 **둘 다 어정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대학이 탐구를 어떻게 세는지부터** 보십시오.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2027학년도 수시 요강에서 **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읽어 낸 2,908줄**이 탐구를 어떻게 세는지 나눠 보았습니다.

세는 법	줄	비중	무슨 뜻인가
1과목	2,356	84%	잘 본 하나만 씁니다
2과목 평균	388	14%	두 과목을 평균 냅니다
2과목	72	3%	둘 다 조건을 봅니다

84%가 한 과목만 셉니다. 이것이 탐구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한 과목만 셉다면 **두 과목을 고르게 하는 것보다 하나를 확실하게** 만드는 편이 낫습니다. **1등급 하나와 3등급 하나가 2등급 둘보다 유리한 조건이 많다는** 뜻입니다.

다만 「**2과목 평균**」이 **14%**입니다. 적지 않습니다. **목표 자리가 어느 쪽인지에 따라 전략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요강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수능최저 문장을 규칙으로 옮겨 저희가 집계. 2,908줄 가운데 탐구를 세는 방식이 밝혀진 것만 셉습니다.

02 · 과탐인가 사탐인가

지목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 물음은 과탐이어야 하는가입니다. 이것도 요강이 정합니다.

요강이 무어라 하나	줄	무슨 뜻인가
과탐만 지목	525	사탐으로는 못 채웁니다
사탐도 됨	1,952	「사/과탐 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탐도 되는 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과탐만 지목하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실제로는 더 중요합니다. 의약학과 일부 이공계에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그 안에 있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밖에 있으면 등급이 잘 나오는 과목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확인 하나로 고민의 대부분이 사라집니다.

사탐이 유리하다는 말에 대해

「사탐이 등급 받기 쉽다」는 이야기가 돌니다. 저희는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과목 사이 유불리는 그해 응시자 집단이 정합니다. 누가 어느 과목에 몰릴지는 시험 전에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둘뿐입니다. 요강이 과탐을 지목했는가, 그리고 내가 어느 과목에서 더 나은 등급을 받는가. 이 둘로 정하시면 나중에 후회가 적습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최저 문장 집계. 반영 방법 쪽 지정은 포함하지 않았으니 실제 지목 자리는 이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03 · 그래서 어떻게 고르나

세 가지 짜임

탐구 두 과목을 고르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셋입니다.

짜임	어떻게	어떤 학생에게
하나에 몰기	주력 하나 + 부담 적은 하나	1과목만 세는 자리를 볼 때
둘 다 고르게	둘을 비슷한 무게로	2과목 평균을 보는 자리를 볼 때
연결해서 고르기	내용이 이어지는 두 과목	공부 시간을 아끼려 할 때

셋째 짜임이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탐구 과목 가운데는 내용이 겹치거나 이어지는 짝이 있습니다. 그런 짝을 고르면 한 과목을 공부한 것이 다른 과목에 그대로 쓰입니다. 두 과목을 하는데 한 과목 반쯤의 시간이 드는 셈입니다.

반대로 성격이 아주 다른 두 과목을 고르면 공부 방식을 두 벌 갖춰야 합니다. 시간이 그만큼 더 듭니다.

다만 이어지는 짝이라고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어려워지면 둘이 함께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위험을 나누려면 오히려 다른 성격의 과목이 낫습니다.

바꾸려면 언제까지인가

탐구는 다른 영역보다 바꾸기가 쉬운 편입니다.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고3 여름을 넘기면 위험합니다. 바꾸신다면 고2 겨울이나 고3 봄까지가 무난합니다.

출처: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집계. 과목 짜임에 대한 설명은 저희 수업 경험에서 나온 판단입니다.

04 · 그래서 무엇을

정하는 차례와 점검표

순서를 지키면 고민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례	무엇을	어디서
1	목표 자리가 과탐을 지목하는지 봅니다	최저 문장 + 반영 방법
2	몇 과목을 세는지 봅니다	1과목인가 2과목 평균인가
3	거기에 맞게 무게를 나눕니다	몰기인가 고르게인가
4	정시도 본다면 정시 조건도 봅니다	수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번에서 전략이 갈립니다. 1과목만 세는 자리를 주로 보신다면 — 하나에 힘을 몰아 **확실한 1등급**을 만드십시오. 다른 하나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덜 쓰는 것입니다.

2과목 평균을 보는 자리라면 — 한 과목이 크게 무너지면 평균이 무너집니다. 이때는 고르게 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탐구 과목을 정할 때 확인하실 여덟 가지

- ☐ 목표 자리가 **과탐을 지목** 하는가
- ☐ 최저가 **몇 과목** 을 세는가
- ☐ **평균** 인지 **택1** 인지 확인했는가
- ☐ 「탐구 2과목만으로는 최저를 못 맞춘다」는 **단서 조항** 이 없는가
- ☐ 두 과목이 **내용상** 이어지는가
- ☐ 학교에서 그 과목을 **개설**하는가
- ☐ 정시 조건도 **함께** 보았는가
- ☐ 지금 바꾸기에 **시기가 늦지** 않았는가

네 번째를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탐구 2과목만으로 최저를 맞출 수 없음」이라고 못 박은 요강이 있습니다. 탐구를 아무리 잘 봐도 **국·수·영** 가운데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입시CUBE가 드리는 말씀

저희에게 손해가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탐구 두 과목을 다 학원에서 하실 필요는 대개 없습니다.** 앞에서 보신 대로 **84%가 한 과목만 셉니다.** 주력 하나를 제대로 하시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 강의나 혼자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과목을 똑같이 붙들다가 둘 다 **어정쩡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손해입니다.

05 · 자주 묻는 것

탐구에 대해 자주 하시는 질문

Q. II 과목을 해야 유리한가요?

대부분의 자리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수능최저는 **등급**으로 썩니다. 과목 이름이 아니라 등급이 들어갑니다. **II 과목으로 3등급을 받느니 I 과목으로 1등급을 받는 편이** 최저에는 유리합니다.

II 과목이 필요한 자리는 **요강이 지목한 곳**입니다. 일부 대학·학과가 특정 조합을 요구하거나 가산을 둡니다. 그런 곳은 **요강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II 과목을 하면 성실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수능 성적표에 그런 항목은 없습니다**. 학종에서 생활기록부의 과목 선택은 읽히지만, 그건 **수능 응시 과목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Q.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과목을 골라도 되나요?

수능 응시 과목은 학교 개설과 무관하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혼자 해야 한다는 부담**이 붙습니다.

그리고 **학종을 함께 보신다면** 생각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학종은 **생활기록부에 적힌 과목 선택**을 봅니다. 수능은 화학으로 보는데 학교에서는 화학을 안 들었다면, 서류에서 그 관심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교에서 듣는 과목과 맞추시는 편이** 낫습니다. 맞추기 어렵다면 **수능은 수능대로, 학종은 학종대로** 따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두 전형에 같은 전략을 쓰려다 둘 다 어긋나는 일이 흔합니다.

한 줄로 남기면

탐구는 어느 과목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요강이 몇 과목을 어떻게 세는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요강 한 줄이 두 해의 공부 방향을 정합니다**.

이 자료는 2026년 8월 기준 2027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의 최저 문장을 집계한 것입니다. 반영 방법 쪽 지정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조건은 이보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개별 대학의 조건은 심지 않았으니 요강 원문을 확인하십시오. 이 자료는 특정 과목이 유리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합격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